

News

영국도 사상 첫マイ너스 국채 발행 대열 합류

연합뉴스

영국 부채관리청(debt management office)은 이날 2023년 만기 채권 37억5천만 파운드(약 5조7천억원)어치를 -0.003% 수익률로 발행
영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 감소하고, 2분기에는 감소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이너스 기준금리 가능성

5월, 국민들의 커져가는 생계비 걱정(?)…개인신용대출 급증

뉴스워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개인신용대출 속도 5월 들어 가팔라져…가정의 달 5월 가족 행사 등으로 지출이 유독 많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114조3,053억 원으로 전월 대비 보름 만에 6,884억원 증가

신한금융투자, 라임 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

파이낸셜뉴스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폐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

은행은 '공인인증서·뱅크사인' 혼용...카카오페이·패스 '기피'

뉴스핌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은행거래에서 '뱅크사인'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카카오페이이나 패스가 은행거래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관측
현재 온라인 은행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 ▲뱅크사인 ▲스마트인증 ▲아이디·비밀번호 ▲지문·홍채인증 등 크게 5가지…

제2 라임 될라 디스커버리펀드 하반기엔 검사결과 낸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로 해외사안 확인 지연...금감원, 운용사 검사 마무리되면 판매사 불완전판매 들여다보기로 배상논의는 하반기 이후 본격화

일부 은행에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향도 고민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아...선지급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있기 때문…

점차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이용...개인보험 사각지대

뉴시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개인보험은 없어 보장 사각지대라는 지적
정부는 전동킥보드 관련법 제정을 4년째 미루고 있어... 국토부,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계획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제재 곧…발행어음 심사 재개 '주목'

건설경제신문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한 제재가 임박...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를 본 뒤 미래에셋대우가 신청한 발행어음(단기금융) 업무 인가 심사 재개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

나신평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 기존 신용등급 유지 …정부 정책 감안"

파이낸셜뉴스

"악화된 영업환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크게 악화...대형 증권사의 재무구조 개선계획, 한국은행 등 정부의 시장안정화 의지 노력 등 감안해 기존 장기 신용등급
미래에셋대우(AAO), NH투자증권(AA+), 한국투자증권(AAO), 삼성증권(AA+), KB증권(AA+), 신한금융투자(단기등급 A1), 메리츠증권(AA-), 하나금융투자(AAO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